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에 관한 연구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윤 현 숙*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전 병 진**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교원과 직원의 장애인 대학 입학에 대한 태도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대학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A대학 교직원 75명으로 6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구성은 사회적 거리감,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도, 장애 대학생 입학에 대한 인식도, 직무지향이었다. 연구 결과, 장애 유형 중에서 감각장애나 지체장애보다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입학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지체장애인($t=-3.25, p<.01$), 정신장애인($t=-2.79, p<.01$), 지적장애인($t=-2.79, p<.01$)에 대하여 교원이 직원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t=-3.83, p<.001$)은 교원이 직원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한 결과, 대인관계가 좋고, 신분이 교원이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거리감이 적을수록 긍정적이었다. 결과를 통해 차별 없는 전형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을 통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교원 및 직원의 인식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함이 논의 되었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대학교직원, 장애유형, 입학인식도

* 제1저자(sclinic@konyang.ac.kr)

** 교신저자(nomadot@hanmail.net)

1. 서론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며, 사회적 인정이고, 법적·제도적인 틀이다(김주영, 2005). 또한 장애인에게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 바로 서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적인 평등 단계에서 벗어나 개인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므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김헬레나, 2000).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 34조 제정으로 1995년부터 장애대학생 특별 전형의 시행은 고등교육 기회 제공뿐 아니라 적극적인 평등 조치의 하나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장애학생이 고등교육 기회를 갖게 되면서 고등교육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박은혜 외(2011)는 장애대학생 재학률 조사를 통해 4년제 대학교 5,929명, 전문대 1,337명, 대학원 347명으로 전체 대학생 6,976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397개 대학 중 174개교(56%)가 장애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의 83%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반하여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39%만이 입학하고 있어 교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특히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교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연간 약 1300명인데 비하여 실제 입학인원은 약 500명 내외로 모집인원의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입학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 및 직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최종근, 2012).

장애인의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서 대학진학이 직업선택과 문제해결기술, 여가, 사회참여, 대인관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임미경, 2008). 즉, 대학이 사회화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강종구, 김영표, 2010; 김주영, 최천복, 광정란, 김기룡, 김진영, 2009). 하지만 대학에서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입학만 허용한 경우 부정적인 고등교육의 성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박은혜 외, 2011). 그 동안 각 대학이 주로 물질적,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을 지속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수옥, 2011; 이경림, 박재국, 2007). 왜냐하면, 장애학생이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부족과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김동연, 2000; 김동일, 손지영, 2006;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김현주, 2009).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도는 특정대 상에게 가지는 표현, 또는 행동양식(Antonak & Linveh, 2000)으로서,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습득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다(Tregaskis, 2000). 그러므로 한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장애인과 어떠한 경험을 가졌는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Gros & Zola, 1993).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특별전형의 시행여부와 전형 시 장애유형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장애유형의 다양성은 고등교육 발전 방안 중에서 장애 대학생의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발달장애 유형의 입학이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더 많은 장애인이 고등 교육기회를 갖게 되었다(강종구, 김영표, 2010; 박은혜 외, 2011). 그러므로 장애인 특별전형은 악용사례와 정원수 미달 등의 실효성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 노력은 실행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및 교육성과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히 대학구성원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대학교육이 단지 전공 분야의 학업기술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초기 성인기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Graham-Smith & Lafayette, 2004). 유수옥(2011)은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변인에 대한 분석에서 동료와 교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교직원이 지니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별전형에 대한 분석과 입학 후 교육 및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입학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은혜 외, 2011; 최종근, 2012).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대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lark과 Kolstoe (1995)가 제안한 포괄적 전환교육 서비스 모델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입학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직원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학단계에서부터 갖는 대학 교직원의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원과 직원 간에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2. 교원과 직원 간에 행정적 지원제도 인식과 심리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교직원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충남 소재 A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중 7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중 6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이 54%(37명)로 여성의 46%(31명)보다 다소 많았으며, 평균 나이는 33.40세이며 최소 22세에서 최대 58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기혼이 58%(39명)이고 미혼이 42%(29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균 학력은 17.46년으로 대학교 졸업(16년) 이상이였다. 근무 개월 수는 평균 51.99개월(4.33년)이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28개월이였다. 즉, A대학의 개교 20년 역사에 비해서 평균 근무 경력이 상당히 낮았고, 초보 근무 경력자부터 대학의 설립 초기부터 근무한 경력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또한 교원이 35%(24명)이고 직원이 65%(44명)이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근무에 대한 기술통계 (N=68)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근무변인	근무_개월수	1	228	51.99	61.25
	교직원더미변수 ¹⁾	0	1	0.35	0.50
성별더미변수 ²⁾		0	1	0.54	0.50
인구사회학	나이_년수	22	58	33.88	10.63
	결혼더미변수 ³⁾	0	1	0.58	0.50
	학력_년수	12	20	17.46	2.02

1) 직원=0, 교원=1

2) 여성=0, 남성=1

3) 미혼=0, 기혼=1

2. 연구 도구

1) 장애 유형에 따른 입학에 대한 인식도

장애 유형에 따른 A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찬성 정도를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으로 5가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교직원이 장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A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5가지 장애유형을 사용하였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년 2회 1시간씩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강좌가 열렸는데 그 때 재학하고 있는 장애 유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인식도 문항은 5점으로 1점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5점의 '매우 찬성한다'로 구성되었다.

2) 사회적 거리감

Laumann(1965)은 사회적 거리감을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병진(2003)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 내 적신뢰도는 0.56~0.87이었다. 총 문항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트만척도(Guttman's scale)로서 1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으며, 5점은 사회적 거리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대인관계와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였다. 대인관계 태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강문희, 이광자, 박경(2003)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구성항목은 친화력 4문항과 사고력 3문항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등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신용철, 임은주, 곽승웅, 정현주, 이기영, 박태진, 김병성(199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이들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0.87이었다.

4)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도

A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을 크게 3개의 영역-생활도움, 학사도움, 행정도움-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생활도움은 생활도우미, 대학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여가 동아리, 기숙사 생활도우미 배치, 장애대학생 상담, 생활만족도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신뢰도는 0.86로 분석되었다. 학사도움은 학사도우미 제도 인식, 장애대학생 학점 절대평가, 수강신청 우선권, 출석부에 장애학생 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신뢰도는 0.65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도움은 장애대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지원센터, 장애대학생 지원가이드, 장애대학생 간담회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신뢰도는 0.90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신뢰 계수
생활 도움	1. 나는 장애대학생 생활도우미 제도를 알고 있다.	3.56	1.10	0.86
	2. 나는 장애대학생 여가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82	1.17	
	3. 나는 기숙사 입사 시 도우미와 한 방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3.09	1.37	
	4. 나는 장애대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76	0.99	
	5. 나는 장애대학생 만족도조사를 통해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65	1.02	
학사 도움	1. 나는 장애대학생 학사도우미 제도를 알고 있다.	3.62	1.08	0.65
	2. 나는 장애대학생 학점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3.09	1.37	
	3. 나는 장애대학생이 수강신청 일주일 전에 우선 신청 하는 것을 알고 있다.	2.71	1.21	
	4. 나는 출석부에 장애학생 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다.	3.78	1.14	
행정 도움	1. 나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82	1.29	0.90
	2. 나는 장애대학생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4.03	1.22	
	3. 나는 장애대학생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고 있다.	3.40	1.17	
	4. 나는 장애학생 지원가이드(책)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07	1.18	
	5. 나는 장애학생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26	1.29	

5) 직무에 대한 지향(Orientation)

전병진(2003)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몰입도와 직무만족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몰입(occupational commitment)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로서 자신을 직업과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 정도이며, 그 직업에 얼마나 헌신하는 정도이다(Morrow & Wirth, 1989). 또한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고용인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이다(Price & Mueller, 1986). 본 연구에서는 전병진(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몰입도 5문항으로 문항내적 일치도는 0.85이고 직무만족도 3문항은 문항 내적 일치도는 0.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평균값을 구하여 직무지향(job orientation) 점수로 사용하였다.

3. 연구 진행과정

연구의 진행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평소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전문가에게 문항을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pilot연구를 진행하여 문항을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A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75명의 자료 중 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원과 직원간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에 대한 입장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전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은 9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에 대한 태도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입학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인이 4.46 ± 0.74 이고 청각장애인은 4.44 ± 0.76 이며, 지체 장애인은 평균 4.40 ± 0.79 로 분석되어 이 3가지 유형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에 비해 정신장애인은 2.84 ± 1.42 이고, 지적장애인은 2.84 ± 1.46 로 두 집단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를 추가적으로 교원과 직원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체장애인($t = -3.25, p < .01$)은 직원이 4.20 ± 0.85 이고 교원이 4.75 ± 0.53 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신장애인($t = -2.79, p < .01$)은 직원이 2.50 ± 1.28 이고 교원이 3.46 ± 1.47 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적 장애인($t = -2.79, p < .01$)은 직원이 2.50 ± 1.34 이고 교원이 3.46 ± 1.50 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장애 유형에 대하여 교원이 직원에 비하여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표 3> 교직원간의 장애인 입학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직원(N=44)		교원(N=24)		t	전체(N=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체장애인입학	4.20	0.85	4.75	0.53	-3.25**	4.40	0.79
시각장애인입학	4.45	0.73	4.46	0.78	-0.02	4.46	0.74
청각장애인입학	4.39	0.78	4.54	0.72	-0.80	4.44	0.76
정신장애인입학	2.50	1.28	3.46	1.47	-2.79**	2.84	1.42
지적장애인입학	2.50	1.34	3.46	1.50	-2.79**	2.84	1.46

* $p < 0.05$, ** $p < 0.01$, *** $p < 0.001$

2. 심리적 태도에 대한 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평소 지니고 있는 심리적 태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에서 평균 3.71 ± 0.89 로 조

사되어 다소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t=-3.83, p<.001$)에서 교원이 직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평상시의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는 평균 4.10 ± 0.69 로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3.99 ± 0.70 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교직원간의 심리적 태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직원(N=44)		교원(N=24)		t	전체(N=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거리감	3.43	0.77	4.22	0.88	-3.83***	3.71	0.89
대인관계	4.11	0.71	4.11	0.67	-0.03	4.10	0.69
자아존중감	3.89	0.74	4.17	0.58	-1.56	3.99	0.70

*** $p<0.001$

3.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A 대학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 대학생에 대한 행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도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2 ± 0.90 이고 학사도움은 평균 3.43 ± 0.81 로 분석되었고 행정도움은 3.32 ± 1.03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 대학생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보통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교직원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가적으로 교직원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교직원간의 행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변수	직원(N=44)		교원(N=24)		t	전체(N=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활도움	3.52	0.87	3.23	0.92	1.28	3.42	0.90
학사도움	3.42	0.83	3.44	0.80	-0.09	3.43	0.81
행정도움	3.43	0.99	3.12	1.11	1.19	3.32	1.03

4.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심 변수들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r=0.27, p<0.05$), 자아 존중감($r=0.29, p<0.05$), 생활도움($r=0.24, p<0.05$), 학사도움($r=0.29, p<0.05$), 행정도움($r=0.28, p<0.05$), 교원($r=0.3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positive)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r=0.32, p<0.01$), 자아존중감($r=0.31, p<0.01$), 학사도움($r=0.3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r=0.31, p<0.01$), 자아감($r=0.31, p<0.01$), 학사도움($r=0.44, p<0.001$), 행정도움($r=0.33, p<0.01$)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r=0.44, p<0.001$), 교원($r=0.32, p<0.01$)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학사도움($r=-0.25, p<0.05$)은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r=0.43, p<0.001$)과 교원($r=0.32, p<0.01$), 직무지향($r=0.24, p<0.05$)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생활도움($r=-0.27, p<0.05$), 학사도움($r=-0.39, p<0.001$), 행정도움($r=-0.29, p<0.05$)은 통계적으로 부적인(negative) 상관이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두 그룹간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입학에 대한 태도와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서 두 그룹간에는 상반되었으며, 특히 생활도움과 학사도움, 행정도움에서는 상관성의 방향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표 6> 장애 유형에 따른 입학태도와 변수간의 상관분석 (N=68)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태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사회적거리감	0.19	0.19	0.13	0.44***	0.43***
대인관계	0.27*	0.32**	0.31**	0.22	0.16
자아존중감	0.29*	0.31**	0.31**	0.00	-0.06
생활도움	0.24*	0.09	0.12	-0.13	-0.27*
학사도움	0.29*	0.32**	0.44***	-0.25*	-0.39***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태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행정도움	0.28*	0.22	0.33**	-0.18	-0.29*
교직원	0.33**	0.00	0.10	0.32**	0.32**
직무지향	0.12	-0.14	-0.09	0.19	0.24*

* $p < 0.05$, ** $p < 0.01$, *** $p < 0.001$

5. 장애학생 입학 결정 요인에 관한 인과분석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우선 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장애유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 대학 입학에 대하여 통합해서 살펴본 결과, 모형 적합도는 F 값이 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설명력인 조절된 R^2 는 27%이었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인관계($\beta=0.59, p < .01$)가 좋고, 신분이 교원($\beta=0.42, p < .05$)이며, 자아존중감($\beta=0.38, p < .05$)이 높고, 사회적 거리감($\beta=0.23, p < .05$)이 적을수록 긍정적이었다. 이를 다시 각 장애 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체 장애인의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원($\beta=0.57, p < .01$)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적합도는 F 값이 3.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하였고 모형설명력인 조절된 R^2 는 21%이었다. 시각 장애인의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없었다. 청각장애인의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활도움($\beta=-0.36, p < .01$)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학사도움($\beta=0.38, p < .01$)에 대한 인식이 높고 행정도움($\beta=0.27, p < .05$)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적합도는 F 값이 4.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하였고 모형설명력인 조절된 R^2 는 28%이었다. 정신 장애인의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beta=0.45, p < .05$)이 좁고 대인관계($\beta=0.98, p < .01$)가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beta=0.90, p < .01$)이 낮고 교원($\beta=0.80, p < .05$)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적합도는 F 값이 4.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하였고 모형 설명력인 조절된 R^2 는 29%이었다. 지적 장애인의 입학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beta=0.43, p < .05$)이 좁고 대인관계($\beta=0.99, p < .001$)가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beta=0.94, p < .01$)이 낮고 교원($\beta=0.78, p < .01$)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적합도는 F 값이 6.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적합하였고 모형 설명력인 조절된 R^2 는 38%이었다.

<표 7>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N=68)

	전체 B	지체장애 B	시각장애 B	청각장애 B	정신장애 B	지적장애 B
사회적거리감	0.23*	0.02	0.17	0.08	0.45*	0.43*
대인관계	0.59**	0.25	0.28	0.35	0.98**	0.99***
자아감	0.38*	0.02	0.06	0.01	0.90**	0.94**
생활도움	-0.22	-0.01	-0.25	-0.36**	-0.09	-0.33
학사도움	0.08	0.16	0.27	0.38**	-0.16	-0.32
행정도움	0.12	0.18	0.16	0.27*	-0.04	0.04
교직원_교원	0.42*	0.57**	-0.17	0.07	0.80*	0.78*
직무지향	0.10	0.13	-0.09	-0.01	0.20	0.28
상수	1.62*	1.64*	2.18***	1.76**	0.77	1.81
<i>F</i>	4.00***	3.19**	2.78*	4.23***	4.39***	6.06***
Adjusted R ²	0.27	0.21	0.17	0.28	0.29	0.38

* $p < 0.05$, ** $p < 0.01$, *** $p < 0.001$

본 연구에서, A대학 교직원들이 장애인 입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확인한 결과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지원정책을 인식하는 수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보다는 평소에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거리감 같은 태도변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교원일수록 장애대학생의 입학에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의 태도변인들이 상당히 중요하였고 이들의 설명력이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29%이고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3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지역공동체의 가능성과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단위의 학교인 A대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대학은 2003년도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실태조사부터 평가를 대비하여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수시전형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2011년 4월 통계에서 장애학생이 총 24명으로 학내구성비는 0.30%인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 장애학생 교육 및 복지실태조사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장애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는 우수하다는 것인데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위해서는 교직원이 이들과 함께 대학 지역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남 소재 A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24명과 직원 44명, 총 6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입학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과 직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지체장애인($t=-3.25, p<.01$), 정신장애인($t=-2.79, p<.01$), 지적장애인($t=-2.79, p<.01$)에 대하여 교원이 직원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t=-3.83, p<.001$)은 교원이 직원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장애대학생 입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좋고, 신분이 교원이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거리감이 적을수록 긍정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에 대한 태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학생의 입학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입학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대학교육의 참여는 지식 습득과 기술의 개발, 사회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Tinto, 1993), 삶의 질 향상(Hayden & Carpenter, 1990), 자아 정체성의 발견과 확립(Chickering, 1993), 더 안정된 직장기회 그리고 기대부응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정신장애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활을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으로 강의방식 부적응, 시험 등 평가방법에서의 불이익, 과제 수행의 어려움, 동료관계와 교수관계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Wiener

& Wiener, 1997; Tinto, 1993). 이는 대학 구성원이 갖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부족이 정신장애 대학생에게 적응문제로 작용하게 된다(김정진, 2004). 즉, 정신장애의 수용과 이해의 부족은 교수나 교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노출로 인해 오해받거나 잘못된 판단을 받으면 낙인화 되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과 관련된 적응의 문제이다(Collins, Mowbray, & Bybee, 1999).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태도는 학교행정, 대학교육정책에 반영되므로 정신장애 학생의 학업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ner, 1999). 따라서 적극적인 평등권 실현의 차원에서 정신 장애인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정신장애인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근용과 유명해(2009)의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지적장애인이 많이 포함된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대학생에 비해 비교적 소외되어 왔으나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명해(2009)의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과정은 대학 교수와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미국의 Illinois주의 National-Louis University에 위치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인 Professional Assistant Center for Education(PACE)에서는 스텝들이 장애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성공적인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유명해, 2009). 이에 비해 국내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데 교직원 중에 지적장애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의 평가지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적인 특성에 따른 장애인 입학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체, 정신, 지적 장애인 입학에 대하여 교원과 직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직원은 4.20 ± 0.85 이고 교원은 4.75 ± 0.53 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직원은 2.50 ± 1.34 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교원은 3.46 ± 1.47 은 보통 이상의 입장이었다. 이는 직업적 특성이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적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제한으로 그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향후의 연구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입학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평소의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교원이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장애 대학생 입학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대학생 입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원보다는 직원 집단을 중심으로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유형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에서 직원과 교원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교원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았다. 김동연과 정재권(1988)은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이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무직, 판매직, 기능직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병진(2003)의 연구에서 재활전문가집단에서 의사집단과 치료사집단간의 차이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재활의료전문가 집단은 평상시에 장애인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의사집단과 치료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학의 교직원은 장애인을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과 직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장애인과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교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대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

3. 장애대학생 지원정책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학사지원제도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교원보다 직원이 생활 및 행정 도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학사도움은 교원이 약간 높았다. 학사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3.32 ± 1.03 에서 3.43 ± 0.81 로 중간 정도이다. 이는 행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직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제

도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입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특히 지적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각 대학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학습지원에서부터 생활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졸업시기가 늦어지는 등 다양한 차이가 나고(김남순, 2001), 여전히 대학생활의 만족과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이경림, 박재국, 2007). 이러한 현상은 장애대학생의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연수, 1995; 전진순, 200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니게 하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여준다(Cimarolli & Beoerner, 2005; Kef, 2002).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가 장애대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지원은 주로 물리적 측면과 교수-학습에만 치중되어 있다(이경림, 박재국, 2007). 따라서 장애 대학생의 성공적인 고등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교직원이 장애 학생의 생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이 고등교육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전환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결론

장애학생 친화적인 캠퍼스(disability-friendly campuses) 풍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대학 교육이 단지 전공 분야의 학업기술의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초기 성인기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박은혜 외, 2011). 따라서 캠퍼스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장애 대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 및 교육성파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대학 전체가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입학만 허용한 경우, 이는 대학생활에서의 실패와 취업실패와 같이 부정적인 고등교육 성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박은혜 외, 2011).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조사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세 유형의 지표 중 선발 영역 세 번째 항목은 장애유형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의 다양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장애학생 친화적인 캠퍼스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진행될 '장애대학생 교육 및 복지실태조사'에서 기존의 항목들과 함께 성공적인 전환교육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정신 장

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입학에 긍정적으로 대답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5.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교원과 직원집단 간의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특정 대학의 교직원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결과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대상자 모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의 특례입학 대학수의 증가, 일반전형 수 증가 등 양적, 질적 팽창에 비해 입학지원 대학생의 30~40%에 못 미치는 입학기회 확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교직원의 입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연구는 대학 입학 이후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전환계획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 이광자, 박경 (2003).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강종구, 김영표 (2010). **경도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K대학교의 사례연구. 지적장애연구, 12(4), 163-189.**
- 교육인적자원부 (2001). **특수교육연찬보고서**. 정기국회보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학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2011).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설명자료**.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2). **제3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장애인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천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남순 (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81-100.**
- 김동연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정책의 과제. 한국 특수교육학회 춘계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13-149.**
- 김동연, 정재권 (1988). **한국인의 장애인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교육학회지, 9, 5-13.**
- 김동일, 손지영 (2006). **장애대학생의 효과적 학습지원을 위한 e-러닝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요구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37(4), 335-357.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이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진 (200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정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학업지원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지원교육모델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2), 97-124.
- 김주영 (2005).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주영, 최복천,곽정란, 김기룡, 김진영 (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김현주 (2009).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김헬레나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은혜, 박재국, 신현기, 최성규, 최종근, 손지영, 최승숙, 채재은, 이효정, 박지연, 원성옥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신웅철, 임은주,곽승웅, 정현주, 이기영, 박태진, 김병성 (1997). 환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의 관계. **대한가정의학회지**, 18(2), 136-143.
-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의 의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유수옥 (2011). 대학생의 내적, 외적 요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감 형성에 미치는 요인. **정서·행동장애연구**, 27(4), 205-230.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 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이근용, 유명해 (2009).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부모의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237-264.
- 임미경 (2008).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연구.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전병진 (2003).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전진순 (2001).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 최종근 (201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의 명칭 변경과 지원자격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 연구**, 47(1), 119-147.
- Antonak, R. E., & Linveh, H. (2000).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Illinois: Thomas books.
- Chickering, A. W.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imarolli, V. R., & Boerner, K. (2005). Social support and well being in adults who ar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9(9), 521-534.

- Clark, G. M., & Kolstoe, O. P. (1995).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Collins, M. E., Mowbray, C. T., & Bybee, D. (1999). Measuring coping strategies in an education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Health & Social Work, 24*(4), 279-290.
- Graham-Smith, S., & Lafayette, S. (2004). Quality disability support for promoting belonging and academic success within the college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38*(1), 90-99.
- Gros, N., & Zola, L. (1993). Multiculturalism,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Pediatrics, 91*(1), 1048-1055.
- Hayden, M., & Carpenter, P. (1990). From school to higher education in Australia. *Higher Education, 20*(1), 175-190.
- Kef, S. (2002).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aning of social support for visually impaired adolesc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6*(1), 22-37.
- Laumann, F.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1), 26-36.
- Morrow, P. C., & Wirth, R. E. (1989). Work commitment among salaried professiona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1), 40-56.
- Price, J., & Mueller, C. (1986). *Absenteeism and turnover among hospital employees*. Greenwich, CT: JAI Press.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egaskis, C. (2000). Interviewing non-disabled people about their disability related attitudes: Seeking methodologies. *Disability & Society, 15*(2), 343-353.
- Weiner, E. (1999). The measuring of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with a psychiatric disability: A grounded theory analysi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2*(4), 403-409.
- Weiner, E., & Wiener, J. (1997). University students with psychiatric illness: Factors involve in the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ir studi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0*(4), 88-91.

A Decisive Factors on the Attitude for the Admission of
University Students with Special needs
: Case of A University

Yoon, Hyeon Sook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Jeon, Byoung Jin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uccessful transition through verifying the difference on the attitude of the faculty and the employees for the admission of students for the special needs analysing the factors for such decision. The 75 questionnaires were sended and returned 6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inally.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the social distance, personal relation and self respect, level of understanding to the supporting policy to the disabled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to the admission of the disabled students and working direction.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faculty and the employees showed that the faculty was higher than the employees in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physical handicapped ($t=-3.25, p<.01$), the mental handicapped ($t=-2.79, p<.01$) and the intellectual handicapped ($t=-2.79, p<.01$) out of the type of the handicapped. But the faculty was lower than the employees in the social distance ($t=-3.83, p<.001$) in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nclusion, the diversified program in university level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university constituent members for the admission of the disabled students shall be developed.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valuate the recognitive factors of the students joint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election range of the disabled students in the “survey on the education and welfare of the disabled students” which is

hel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ey Words : Student with special needs at university, Faculty of university,
Type of disabilities, Recognition of admission

논문 접수: 2012. 11. 04 심사 시작: 2012. 11. 13 게재 확정: 2012. 12. 20